

return of **Viet Nam**

K.E.Y.
PLATFORM
2014 April 23 – 24, 2014
Conrad Seoul, Korea

Han, Jae Jin

Managing Director,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cult1212@gmail.com



2012년~2015년 경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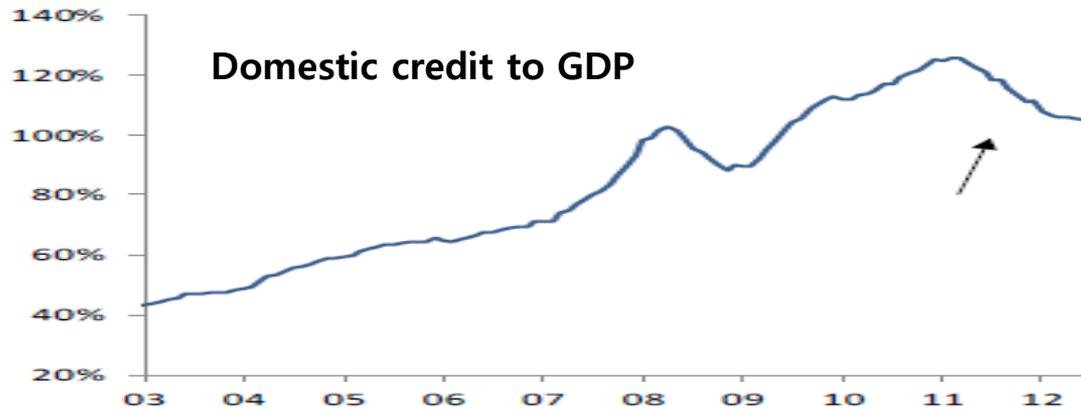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과거 과도한 신용통화 공급에 따라 물가 폭등 및 사회 경제 불안 요소가 있었고 2011년 이후 Deleveraging이 시작되며 자금 경색에 따른 산업 및 경제 성장률 침체가 나타나고 있음.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 과거 2007년 WTO 가입 이후 2010년까지 연간 신용 증가율은 25%에서 54% 수준을 기록하며 민간 부채는 2007년 GDP의 70% 수준에서 2011년 최대 124% 수준까지 급증
- 2011년 물가 폭등에 따라 Deleveraging을 개시하며 신용 증가율 대폭 억제 (2011년 10.90%, 2012년 8.9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2 증가율	46.10%	20.30%	29.00%	33.30%	12.10%	22.70%
대출 증가율	53.89%	25.43%	39.57%	32.43%	10.90%	8.91%
물가 상승률	12.63%	19.89%	6.52%	11.75%	18.10%	6.81%



과거 과도한 신용통화 공급에 따라 물가 폭등 및 사회 경제 불안 요소가 있었고 2011년 이후 Deleveraging이 시작되며 자금 경색에 따른 산업 및 경제 성장률 침체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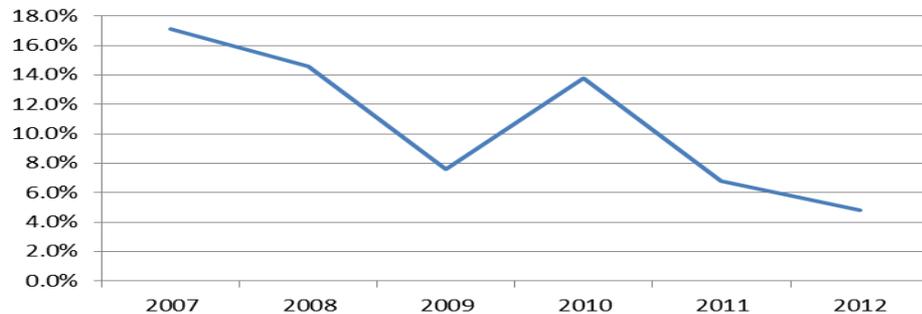
- 단기 신용 경색 현상에 따라 산업계의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침체가 나타났음.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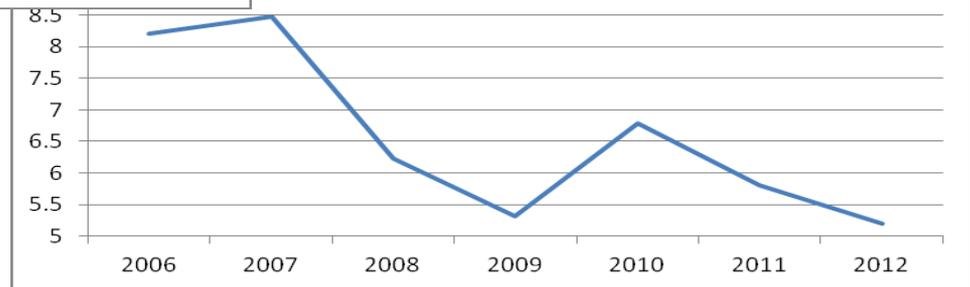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산업생산증가율



* 출처: 베트남 통계청

GDP Growth Rate



* 출처: 베트남 통계청



외자 도입 초기에 비하여 현재 경제는 수출 주도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향후 제조업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강화될 전망이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집행액 (억불)	80	115	100	110	110	105
명목 GDP(억불)	674	824	887	1,046	1,225	1,417
집행액/명목 GDP	0.12	0.14	0.11	0.11	0.09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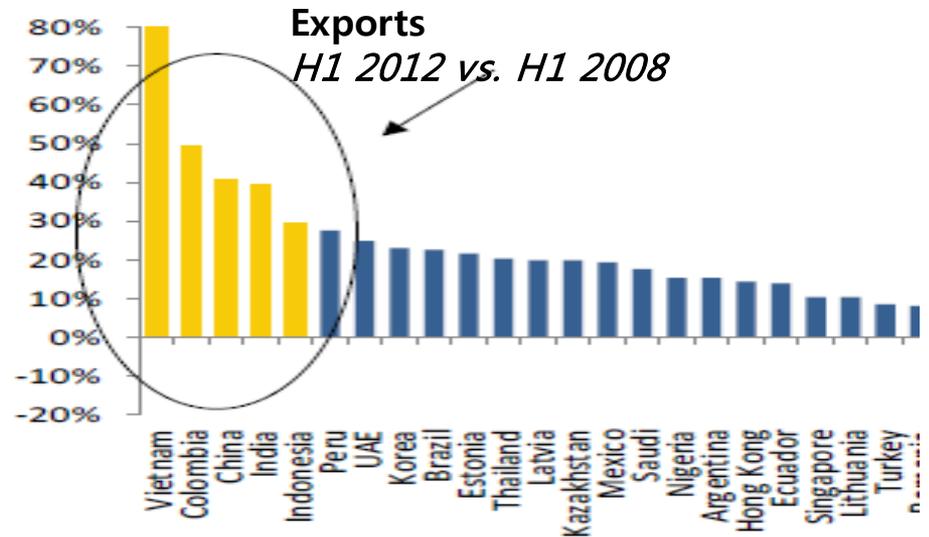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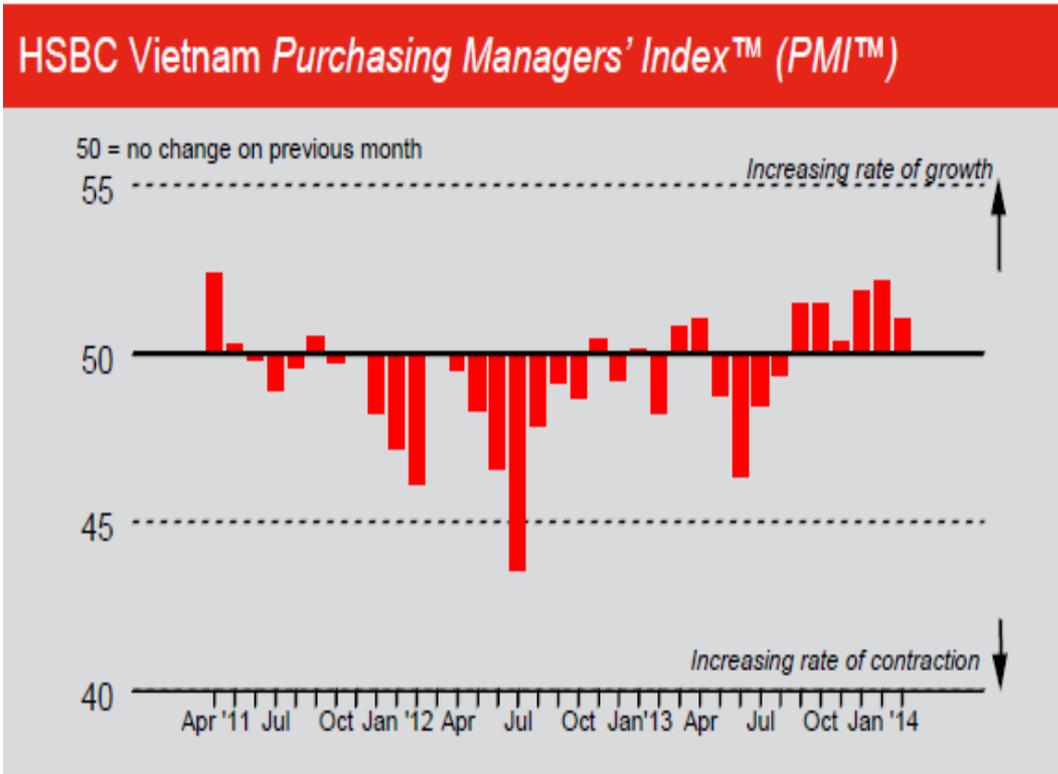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 출처: 베트남 통계청

- 명목 GDP의 최대 14% 수준에 달하던 외자 집행액의 경제 비중이 지속적인 수출 신장에 힘입어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로 전환



2013년 12.5% 수준의 신용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 개선이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7개월째 구매 및 생산 활동 개선을 지속하고 있음.



- 1월 PMI 인덱스 52.1로 베트남 조사 개시 이래 최고치 2개월 연속 갱신한 후 2월 51.0, 3월 51.3 기록
- 9월 이후 7개월째 PMI 50 이상 기록중
 - 9월 51.5, 10월 51.5, 11월 50.3, 12월 51.8, 1월 52.1, 2월 51.0, 3월 51.3
 - 신규 오더 6개월째 증가세
 - 3월 생산량 및 구매량 최근 6개월내 최대폭 증가



중앙은행은 현재 은행 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동성 강화, 부실채권 정리, 업체 구조조정의 3단계를 통하여 2015년 완료할 계획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 (2011년 ~ 2015년)

- 3차례 은행간 합병, 현재도 6개 은행 합병 진행중
- 현재 베트남 금융기관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 국영상업은행 5개, Joint Stock Bank 34개, Joint Venture Bank 4개
- 외국계 5개, 외국계 지점 50개, Finance 회사 18개, 리스사 12개

- 금융산업 구조조정 Inter - 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 설립 (3월 11일)

- Vu Van Ninh 부총리(의장), 중앙은행 총재(부의장)
- 부실 채권 처리를 포함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작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부처를 망라하여 특위 구성

- VAMC 활동 내역

- 지난해 연간 30조동 부실 채권을 인수에 이어 연초 3개월간 약 20조동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며 연간 총 120조동 인수 계획.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의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수할 계획으로 비핵심 사업 철수, Governance 개선,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임.

- 국영기업 구조조정 계획

- 2015년까지 정부 100% 지분 1,309개 중 600여개 매각
- 국영기업은 방위산업, 자연독점산업, 핵심공익산업, 전략적 하이테크 산업에 국한하여 운영
- 국영기업으로 하여금 2013년부터 상장기업과 유사한 정보 공시 제도 적용, 재무부 역시 국영기업의 성과 매년 웹사이트에 공개
- 정부 지분을 100% 1,309개 국영기업에 대하여 101개의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Governance 문제 조정 예상

Leveraging에서 Deleveraging으로 전환

FDI 주도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개시

- 국영기업과 금융산업 -- 부동산 산업

- 과거 부실 대출의 상당 부분은 국영기업의 부동산 대출
- 부실 대출액 중 국영기업 대출액 비중 70%, 부실대출액 중 부동산 관련 70%



금융산업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모두에 있어 핵심의 하나가 부동산 산업 활성화에 있으며 최근 수년만에 시장의 반응이 나타남.

- 금리 인하(3월 18일)
 - 6개월 미만 단기 예금 금리 상한 7%에서 6%로 인하, Refinancing Rate 7%에서 6.5%, Discount Rate 5.0%에서 4.5%로 인하
 - 3월 현재 12개월 물가지수 4.39%
- 금융 지원 프로그램
 - 2013년 5월 서민층 구매 이자 지원 프로그램 (30조동) 실시중
 - 중산층 구매자 대상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 대상 대출 지원 준비중
 - 건축은행과 4개의 상업은행이 인프라 프로젝트 및 평균 소득자용 아파트 구매 지원 대상 제안 (3월 6일)
 - 5대 국영은행, 80개 중단 부동산 프로젝트 대상 투자자, 시공사, 건자재 업체등에 대하여 70조동 규모 Loan Plan (4월)
- 외국인 거래 허용
 - 주택 법안 5월 국회 통과 예정으로 3개월 비자 소유자에게 소유 허용 예정
- CBRE에 따르면 3월 호치민시 아파트 판매 전년 대비 92.2% 급증



산업 생산 개선과 부동산 시장 개선 등에 의하여 금년 Real GDP 성장률은 2013년보다 개선된 6.0% 수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2013	2014(High)	2014(Low)
고정 투자액	8.04%	19.23%	13.46%
정부 및 국영	8.40%	14.29%	9.52%
민간	6.60%	12.24%	7.14%
외자	9.90%	40.35%	31.58%

	2013	2014(High)	2014(Low)
소비 지출액	12.88%	20.48%	16.07%
정부 및 국영	-8.60%	17.55%	13.49%
민간	15.30%	20.34%	15.71%
외자	32.80%	32.80%	32.80%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총 수출액	132,175	157,708	총 수출액	15.4%	19.3%
원유	7,236	7,236	원유	-13.9%	0.0%
textile	17,891	23,258	textile	18.3%	30.0%
shoes	8,366	10,039	shoes	16.5%	20.0%
핸드폰	21,517	32,276	핸드폰	70.3%	50.0%
전자제품	10,677	13,880	전자제품	37.0%	30.0%
기타	54,074	58,605	기타	8.4%	8.4%

2014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억불, Nominal)	2012	2013	2014(High)	2014(Low)
물가지수	6.81%	6.04%	7.50%	6.00%
명목 성장률		11.46%	13.54%	11.49%
실질 성장률		5.42%	6.04%	5.49%
고정 투자액/GDP	31.4%	30.5%	32.0%	31.0%

- 201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World Bank(5.4%), 정부(5.8%)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인근 인도차이나 개발 도상 국가들에 비하여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음.

	인당 연간 전력 생산량* (kwh)	인당 연간 석유 소비량* (천 bbl)	인구당 유선 통신 회선수 (2010)	인구당 무선 통신 회선수 (2010)	인구당 인터넷 사용률 (2010)
한국	8,559	16.16	0.585	1.042	80.8%
베트남	1,075	1.24	0.181	1.701	25.8%
캄보디아	95	0.76	0.024	0.558	0.5%
미얀마	119	0.24	0.011	0.011	0.2%
라오스	247	0.16	0.016	0.618	4.6%

* 한국 2009년, 베트남 2010년, 캄보디아 및 미얀마 2008년, 라오스 2010년 기준

	철도 길이* (km)	도로 길이* (km)	포장 도로* (km)	포장 도로 비율* (km)	상선 보유수** (km)
한국	3,381	103,029	80,642	78.3%	819
베트남	2,347	171,392	125,789	73.4%	537
캄보디아	690	38,093	2,977	7.8%	194
미얀마	5,031	27,000	3,200	11.9%	26
라오스	N.A.	39,568	530	1.3%	1

* 한국 및 베트남 2008년, 캄보디아 2007년, 미얀마 2006년, 라오스 2009년 기준

**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에서 운용되는 세금 회피용 단순 국적선 426개 제외



중미 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의 변화에 따라 베트남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함께 총 4.2억대의 생산 능력을 베트남 북부 지역에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품 산업이 급증하고 있음.

• 삼성전자 (연산 2.4억대)

– Bac Ninh 1 공장 (25억불)

– 2009년 가동 개시, 4.3만명 근무, 월평균 14백만대 생산 중

– Thai Nguyen 2 공장 (20억불)

– 3월 15일 생산 개시, 4개월간 월 2백만대, 이후 월 9백만대 생산 계획

– 현재 5천명 근무, 연말 1.5만명 예상

– 삼성전기 12억불 핸드폰 전용 Chip 공장, 8월 가동 전망

– 수출액: 2012년 127억불, 2013년 215억불, 2014년 2개월 33억불

– 총투자액 25-20-12 억불

• 노키아 (연산 1.8억대)

– 총 생산 능력 1.8억대 중저가 제품 중심

– 2013년 11월 가동 개시



한국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전 업체들이 생산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의 중심으로 부상 예상됨.

- 기존 업체 현황
 - 토요타, 혼다, 캐논, 인텔, 컴팔, 엘지전자 등 대거 진입
- 엘지 전자
 - 기존 하이퐁 2개 공장을 통합하며 15억불 신규 투자 프로젝트 공사중
- 삼성전자 호치민시 백색 가전 공장
 - 9군 Saigon High-tech Park 계약설 (공단 전체 면적 913 헥타르)
 - 70~100 헥타르로서 전세계 삼성 가전 공장 최대 규모
- 생산비 현황
 - 거의 모든 주요 부품이 수입되고 있으나 향후 전자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국산화 예상



사양 산업으로 취급되던 섬유 산업이 최근 유로-베 FTA와 TPP의 효과에 따라 산업 구조가 확대되며 다시금 미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업체 현황

- 섬유·의류 산업은 GDP의 8%, 제조업 생산액의 10%, 총 수출액의 15%, 전체 제조 고용의 24% 차지 (2011년 기준)
- 일부 특수 원사 부분은 한국계와 대만계에 의하여 비교적 뛰어난 시설 보유하나 최대 수요인 면사 및 면직 등 주요 원자재가 중국산 수입에 의존
- 전반적으로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닌 경제성의 원리에서 산업 개발 단계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 파생에 산업 발전 방향 의존.

• 수요 전망

- 국내 최근 패션 산업이 파생되고 있으나 경제성 있는 시장 형성 미비
- 유럽 FTA 무역 시장 및 TPP를 통한 미국 시장 개척 예상



베트남이 TPP에 의하여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대미국 섬유봉제류 수출이 크게 증가 예상됨.

• TPP의 베트남 효과

- 미국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는 TPP 가입국 중 베트남 가장 큰 수혜국 평가
- 주된 수출 증가 예상 부문은 섬유, 봉제로 섬유협회는 2012년 76억불 대미 수출액이 2016년 166억불로 90억불 증가 기대

2025년 기준	수출액중 TPP 효과 비중	GDP 총액 중 TPP효과 비중
베트남	37.30%	13.57%
말련	12.40%	6.10%
일본	14.00%	2.24%
뉴질랜드	7.80%	2.25%
미국	4.40%	0.38%

출처: 미국 Peterson 국제 연구소

베트남 주요 섬유 제품 수출국별 수입 관세					
	수출 비중	2013년 현행		2015 예상치	비고
		제품별	평균		
미국	50%	12~32%	17.50%	0%	TPP
유럽	16%		9.60%	0%	베/EU FTA
일본	12%	0%	0%	0%	베/일 EPA
한국	6%			0%	한/베 FTA
기타	14%	n.a.	n.a.	n.a.	n.a.

출처: 베트남 섬유봉제 협회, Viet 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Vitas)



그러나 현 베트남의 섬유산업 구조를 감안시 미국의 Yarn Forward Principal이 적용될 경우 부문별 추가 투자가 필요함.

2012년 12월 기준

Materials	Spinning	Weaving & Knitting	Dyeing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20 k mt 수요 •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20 k mt -수입 415 k mt • Poly Fi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90 k mt -국내생산 290 k mt -Formosa 및 PV Tex 주공급 • Visc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 k mt -수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1 백만 Spindle Capa 보유 • 추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xhong 1 백만 -Glostex 5십만 • 총 700 k mt yarn 생산 (29~40 데니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국내 수요 대상 공급 -65% 해외 수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억 sqm 생지 (Raw Fabric)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 백만 sqm 수출 및 기타 용도 -800 백만 sqm 국내 염색 공정 • 방직(Weaving) 800 백만 sqm 생산 • 편직(Knitting) 110 k mt 생산 (면적 기준 약 500 백만 sq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00 백만 sqm 염색 Capa 보유 • 베트남 전체 섬유 산업에 있어 Bottle neck 공정에 해당되어 투자 수요 있으나 지방 정부의 환경 관련 억제 정책으로 투자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원단 소요량은 68 억 sqm로서 국내 생산 800백만 외에 전량 해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50% -기타 50% • 총 매출액 FOB 기준 200억불(내수 28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단 17억불, 의류 155억불 • 총 수출액 172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0%, 유럽 16%, 일본 12%, 한국 6%, 기타 14%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이 미국의 YFP를 준수하며 수출 증대를 이루기 위하여 현 생산량의 절대적인 증설이 필수임.

- Yarn Forward Principal

- 현재 TPP 역내 12개국 중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켜줄 국가가 없는 상황
- 베트남이 미국행 무관세 효과를 누리고 90억불 수출 증가를 감안한다면 총 55억 평방미터의 염색 능력, 50억 평방미터의 방직/편직 능력, 50만톤의 원사 생산 능력 추가 필요
- 현보유 능력에 대하여 염색 7.8배, 방직/편직 4.8배, 원사 1.7배로 YFP 완전 적용시점까지 증설 필요



철강 산업의 경우 최근 포모사 프로젝트와 용꽁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과잉 설비 논란까지 불거지며 2011년 553만톤 생산량이 2017년 이후 2400만톤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포모사 Vung Ang 경제 지구 철강 프로젝트
 - 1단계 1050만톤 용광로 (3단계 가동)
 - 각기 350만톤 용광로 3기를 2015년 5월, 2016년 5월, 2017년 5월 순차적 가동 예정
 - 열연 270만톤, 냉연 및 철강 구조물 780만톤
 - 2단계 1200만톤 추가 (2020년 이후)

- Guang Lian Dung Quat 철강 프로젝트
 - E-United, JFE Steel 합작
 - 45억불, 연간 700만톤 , 7000명 고용
 - 504헥타르, 2014년 6월 공사 개시

- 포스코 특수강 100만톤 전기로
 - 30만톤 형강, 70만톤 철근

베트남 철강 제품 공급 현황(2007~2011)						
단 위: 천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생산	Roll	4,250	3,827	4,558	3,993	3,773
	Bar				1,561	1,759
	전체	4,250	3,827	4,558	5,554	5,532
수 출	전체	-	-	457	1,280	1,801
수 입	전체	7,705	8,464	9,632	9,080	7,197
국내 Supply Total		11,955	12,291	13,733	13,354	10,928

출처: 베트남 통계청, 관세청
*공급량: 생산량 - 수출량 + 수입량



현재까지 일정 부분 전력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BOT 프로젝트의 활발한 진행에 따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2018년 이후 전력 순수출 국가로 전환할 전망이다.

• 전력 수급 전망

- 전력 2010년 107 TWh, 2025년 484 TWh
- 송전 용량 2010년 88 GVA, 2025년 328 GVA로 3배 이상 증대
- 송전선로 35,500 KM에서 60,000KM로 확장
- 현 송배전 과정 전력 손실률 12% (고압 전송 설비 및 시스템 운영 능력 부족)

진행 프로젝트 투자 내역*	백만불	MW
외자 단독	22,631	17,149
외자 합작	25,350	15,930
자체	10,037	8,200
전체	58,018	41,279

* 총 38개 대형 프로젝트 기준, 핵발전 제외, 출처: EVN 및 BMI 2012 Q4 Power Report

• 관련 법률 현황

- 2010년 이전 낮은 전력 매입가격과 투자자 보호 미흡, 비우호적 법률 문제의 영향으로 외국계 BOT의 진행이 어려웠음
- 2011년 기점으로 규정 및 가격 체계의 변화에 따라 현대, 태광, 두산, 포스코, 한전 등의 한국 회사들을 포함, BOT가 활발히 진행 중임.
- 2005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3단계(다수 판매-단일 구매, 다수 판매-다수 구매, 소매 자유화)로 구분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2012년 7월 CGM* 조치를 개시



2009년 일산 9만 배럴로 시작된 베트남의 정유 산업은 향후 총 146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며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석화 산업 인프라가 2020년 완성될 전망이다.

- Nghi Son 정유 공장 (총 70억불 투자, 일산 20만 배럴)
 - 페트로베트남 24.1%, Idemitsu Kosan 35.1%, Kuwait 석유공사 35.1%
 - 2013년 1월 GS-SK 컨소시엄, 21억불 공사 수주
- 용꽁 정유공장 증설
 - 14만에서 20만 배럴로 증설 및 고도화 작업 예정
- LONG SON 정유공장 (70억불, 20만 배럴)
 - JX Holdings (구 Nippon Oil) 투자, 2020년 완공 예정
- 태국 PTT*(태국 국영석유공사,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66만 배럴
 - 베트남 중부 Nhon Hoi 2000헥타르, 287억불 투자
 - 2014년 허가 획득, 2016년 공사 개시 및 2019년~2020년 가동 전망
- SOUTHERN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Siam Group)
 - 바리아 붕따우성 롱손 정유 공장 지역 45억불투자, 2017년 가동 예상



장기 전망에 있어 무역 기반 및 산업 기반의 확충 효과에 따라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8%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며 2018년 외환 보유고 717억불과 과거 중국과 유사한 환율 평가 절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 무역 기반 개선 지속
 - 대미 관계 지속 개선, EU GSP 가동
 - 베-EU, 한-베 FTA , TPP 협상 타결로 역대 최대 무역 시장 확보
- 산업 경제 성장
 - IT 수출 전선 지속 증가: 삼성전자 핸드폰(2011), 인텔 (2013), 노키아 (2013), 엘지 전자 및 삼성전자 가전 (2014)
 - 석화, 철강 등 산업별 Full Line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 이동
 - TPP로 인한 섬유 산업의 재부흥
- 외환 보유고, 외채, 환율
 - 2012년 기점으로 설비 수입이 1차적으로 정리, 내수 생산 원자재의 증가로 무역 수지 개선
 - 2018년 외환 보유고 717억불 및 환율 11,750동 전망(BMI)



still just
Start of
Viet Nam

K.E.Y.
PLATFORM
2014 April 23 – 24, 2014
Conrad Seoul, Korea

